

부모의 양육행동 및 인성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and Personality,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 수 박 영 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강 사 최 은 경

Dept. of Child development & Guidance Hannam Univ

Prof. : Park, Young Ya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rea National Open Univ

Lecture : Choi, Eun Kyoung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s and parental personality,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The subjects included 233 children from kindergarten to 6th grade and their par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EI) showed sex differences and age differences between two grade-groups(kindergarten~3rd grade, 4th~6th grade), the age-differences being more distinct in other-related EI than in the self-related; Secondly, parental personality explained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s better in higher-grade groups than in lower-grade groups, maternal personality predicting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better than paternal personality predicting the p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Thirdly, childrearing behaviors explained children's self-related EI better than the other-related; Finally, parental personality revealed greater predictive power of children's EI in higher-grade groups than in lower-grade groups, better explaining self-related EI than the other-related.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concerning future EI studies.

◆ 주요어: 정서지능, 양육행동, 인성, 연령차, 성차

I. 서론

인간의 삶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개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다. 이러한 삶을 위해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정신능력에는 합리적 사고와 판단을 관장하는 이성과 감정을 경험하고 조절하는 능력인 감성이 있다. 최근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 Mayer & Salovey, 1990)이라는 개념은 이 두 가지 중에서 감정을 경험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개념 속에서 정서란 생겨나는 감정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고 인지적 활동과 후속 행동을 결정하고 조직해 주는 것이며 이 두 가지 능력인 이성과 감정 또는 정서와 인지는 상호 작용하고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룬 가운데서 발달해야 함이 강조된다(Mayer & Salovey, 1996).

정서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는 능력,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 사고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서를 발생시키고 정서적·지적 성찰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과 학업 성취 및 직장에서의 성공적인 업무 수행 등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다(Mayer & Salovey, 1990, 1996). 이는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아동이 자기 나름의 조화와 균형을 지니고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발휘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 적응 능력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사회적, 인지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정서지능의 발달이 매우 중요함(Golman, 1995: 35-49; Mayer & Salovey, 1990, 1996)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서지능과 관련된 기술을 배우는 것은 인간이 최초로 접하는 사회적 환경인 가정에서 시작되며 특히 부모는 유아가 정서표현을 배우는 최초의 중요한 환경으로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서를 경험하고, 정서적 반응을 해석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표현해야 할 정서와 해석은 안돼는 정서표현 방식을 인식하고 정서적 표현행동을 결정하게 된다(Parke, 1994).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의 민감하고 적

절한 감정이입적 반응(Mayer & Salovey, 1995), 부모 자신의 정서표현(Bornstein, 1993)은 아동의 정서 기술 발달과 그 이후의 적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무관심하고 감정표현 방식을 비난하며 자녀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 아동의 정서지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Goleman, 1995: 215-227). 가정이 아동의 정서지능 발달에 매우 중요한 환경임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영향이라든가 부모 및 가족변인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탐구해 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더욱이 정서지능의 발달적 변화라든가 정서지능과 다른 주요 변인들과의 관계의 발달적 변화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교육학, 심리학, 아동학 등 여러 학문 분야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감성지능 또는 정서지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아직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정서관련 연구들(김병임, 1992; 김지영, 1989; 김향희, 1996; 박영미, 1995)도 안정성, 불안증, 우울증, 정서장애 등 정서 상태 자체에 대한 것이다.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그에 관련된 서적들이 급증하고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이나 정서지능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교재·교구들은 앞다투어 나오고 있으나, 정작 정서지능에 대한 이론적, 체계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국내외 학자들의 부단한 관심을 받아온 연구주제로서 양육행동이 아동의 다양한 발달특성들과 유의한 관계를 보인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 의해 입증되어 왔다(권일선, 1994; 노현미·박인전·박영애, 1999; 박영애, 1995; 박영애·최영희·박인전, 2000a; 신동수, 1996; 정연주, 1996).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효과나 양육행동과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 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양육행동의 주요 결정요인이 되는 개인 내적 변인으로서의 부모의 인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인성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본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가 어렵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성격은 아동의 발달

과 부모-자녀 관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은수, 1985; 전현진 1997; 최영희, 1992). 어머니의 우울은 그에 수반되는 정서적인 불안으로 부모의 양육능력을 저하시키며,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부모는 학동기 아동에게 강압적이고 비밀관적인 훈육을 하는 것으로 나왔다(박세정, 박인전, 최영희, 2000). 책임감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어머니일수록 자녀를 애정적으로 보살피고 활동적이며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이은수, 1985). 또한 부모의 성격과 정서상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표현과 양육상태를 결정하게 되고 부모의 요구경향과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하게 되어 아동의 정서와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Huntsinger, Jose & Larson, 1998). 그러므로 자녀의 정서적 특성을 결정하는 많은 요인들이 부모 자신의 성격이나 그에 연관된 태도와 행동 양식 등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행동이 그의 내면적 사고나 정서와 무관할 수 없듯이 부모의 양육행동도 특정한 상황에서의 특정 대상에 대한 그의 인성특성의 표출일 수밖에 없다고 볼 때, 부모의 양육행동을 인성과의 관계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서 아동발달의 주요한 맥락적 요인으로서의 부모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와 같은 변인들과 아동의 발달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은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 및 인성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살펴 보면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고 자신의 인성과는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부모의 인성이 아동의 정서지능과는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계들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인성의 기여와 아울러 아동기의 정서지능 발달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인성의 기여양상을 확인하고 이들의 발달적 변화를 추정해 봄으로써 아동의 감성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양육행동 특성과 인성특성을 규명하고, 나아가서는 아동의 원만한 품성 형성과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동지도와 부모교육의 기초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정서지능은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의 인성특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부모의 인성 특성과 아동의 정서지능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지능과 부모의 인성특성 및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아동의 정서지능이 연령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보이는 지와 그러한 변화가 부모의 인성특성 및 양육행동 특성과의 관계에서도 발견되는지를 탐구해 보기 위한 일련의 연구 중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심의 일차적 분석에 이어 두번째로 수행된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연구대상은 서울과 대전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아동들 233명과 그들의 부모들이었다. 대상 아동의 구성은 유치원생이 13.7%, 1학년이 15.0%, 2학년이 15.9%, 3학년이 13.3%, 4학년이 14.6%, 5학년이 13.3%, 그리고 6학년이 14.2%였다. 이들 중 남자는 53.6%, 여자는 46.4%였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발달적 차이 내지는 변화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 이들은 저학년(유치원~3학년)과 고학년(4학년~6학년), 두 집단으로 나뉘어 분석되고 비교되었다. 이처럼 연령 또는 학년을 구분한 이유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기에는 적지 않은 발달적 수준차이가 내재되어 있어 우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연령은 40세~49세가 61.4%, 39세 이하가 37.6%였고, 어머니의 연령은 30~39세가 70.7%, 40세 이상이 27.8%를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이 58.1%, 고졸이 27.6%, 대학원 이상이 10.8%였고, 어머니의 경우는 고졸이 56.4%, 대졸이 37.6%, 중졸 이하가 4.5%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53.5%, 자영업이 30.2%, 노동직·서비스직이 7.9%, 전문직이 7.4%를 차지했고, 어머니의 경우는 주부가 74.4%, 사무직이 10.8%, 자영업이 8.2%, 전문직이 3.6%, 그리고 노동직·서비스직이 33.1%를 차지했다. 가계 수입은 100~200만원인 경우가 55.4%, 200~300만원이 23.0%, 300만원 이상이 15.9%, 그리고 100만원 미만이 5.7%였다.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대상 집단은 대체적으로 중산층 가정의 아동과 부모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와 인성검사, 그리고 아동의 정서지능 척도의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1) 양육행동 척도

양육행동 측정을 위해서는 Schaefer가 제안한 양육행동 차원모형과 몇 가지 다른 대표적인 양육행동 척도들을 토대로 하여 박영애(1995)가 제작한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온정·수용, 거부·제재, 그리고 허용·방임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80문항의 리커트형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특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부모자녀관계나 양육행동 또는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들이 국내에도 여러 가지 나와있고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본 양육행동 척도를 선택한 이유는 아동의 정서적 경험과 그에 대한 아동의 이해와 표현, 그리고 자기와 타인의 정서 조절과 정서활용 및 감정이입 등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아동의 정서지능이 부모 양육행동의 온정·수용성과 거부·제재성, 그리고 부모의 허용성 및 무관심·방임 요인들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온정·수용이 .93, 거부·제재가 .91, 그리고 허용·방임이 .78이었다.

2) 정서지능 척도

아동의 정서지능 척도는 선행연구들(곽윤정, 1997; 문용린, 1997; 문용린, 곽윤정, 이강주, 1999; Salovey & Sluyter, 1997)에 제시된 정서지능의 개념과 주요 하위영역들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진이 제작하였다. 척도는 자기정서인식, 타인정서인식, 자기정서조절, 타인정서조절,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활용 등 일곱 개의 하위영역에 걸친 47개의 문항으로 시작되었으며, 4명의 아동학분야 교수와 전문가 및 6명의 박사과정 전공자들에 의해 내용타당도와 문장표현방식 등을 검토 받고 예비조사와 신뢰도 분석을 거치면서 일부 삭제되고 수정·보완된 41문항이 본 조사에 사용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2요인 구성이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채택되었는데, 그 이유는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범위가 넓고 상당한 발달적 차이를 지니고 있는 관계로 다요인구조를 공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희망하기는, 유아기에서 아동기에 걸친 아동들이 지니고 있는 정서지능의 공약수를 추출하고,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양육 및 인성 요인들을 파악하며, 단순한 요인구조 내에서의 발달적 변화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두 정서지능 요인에는 요인부하와 논리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제거한 5문항을 뺀 36문항이 포함되었다. 많은 문항들이 제거된 관계로 총 설명변량은 약 20%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문용린 등(1999)의 연구에서 밝혀진 5개 요인의 설명변량인 36%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본 연구의 다른 요인분석 결과에서 문항수나 요인수가 많은 경우는 설명변량이 보다 높았던 것(6요인구조는 38%, 5요인구조는 34% 등)을 참작하면 문항이나 척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정서지능의 제 1요인은 타인 관련 정서지능(20문항)으로 타인정서의 인식과 조절 및 정서표현과 감정이입을 포함한다. 제 2요인은 자기 관련 정서지능

(16문항)으로 자기 정서의 인식과 조절 및 활용을 포함한다. 두 요인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정서의 인식과 조절을 제외하고서 두 요인간의 중요한 차이를 보면, 타인관련 정서지능에 포함된 정서표현과 감정이입은 경험과 관심의 초점이 타인에게 있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을 중시하는 것인 반면 자기관련 정서지능에 포함된 정서활용은 관심과 생각의 초점이 자기에게 있고 현재의 부정적 정서를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의 강구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타인관련 정서지능은 타인과의 관계 중시와 배려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 자기관련 정서지능은 정서적 문제해결의 방식과 자신에 대한 관심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점수체계는 혼합체계로서, 정서인식과 정서활용은 2점 척도였고 정서조절, 정서표현, 감정이입은 4점 척도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서지능 척도 전체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로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고, 각 하위요인별 α 값은 타인관련 정서지능이 .84, 자기관련 정서지능이 .68로 나왔다. 그리고 두 정서지능 요인간 상관관계(Pearson's r)는 저학년이 .44($P < .01$), 고학년이 .33($P < .01$)으로 나왔다. 이는 서로 다른 정서지능 하위요인들간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온 박영애 외(2000b)의 결과와 유사하다.

3) 인성척도

인성척도는 다면적 인성검사(MMPI)의 한국어판(1998)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정서지능이나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 인성의 설명력을 보기 위해서는 유형론적 접근보다는

차원론적 또는 요인론적 접근의 성격검사가 보다 본질적인 관계 규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고, 비록 임상척도이기는 하지만 어떤 인성요인이 양육행동이나 아동의 정서지능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는 데 고유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성격검사로서 임상척도가 아닌 일반 성격요인 검사들이 있기는 하나, 많은 연구와 임상현장에서 사용되면서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증이 이루어진 MMPI가 선택

되었다.

축약형 MMPI의 총문항수는 383문항이고, 임상척도인 열 개의 하위척도 점수들(T점수)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열 개의 임상척도들은 부정적인 행동특징만이 아니고 긍정적인 행동특징들을 포함하는 기본차원들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Kunce & Anderson, 1976, 1984). 각 하위척도별 주요 내용과 기본차원들(김중술, 1996: 73-124)은 <표 1>와 같이 종합적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부모들의 인성특성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하위척도별 평균점수 및 분포범위를 <표 2>에 소개하였다. 모든 평균이 45점에서 51점 사이에 속해 있어 전체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상인 집단임을 알 수 있고(김중술, 1996:125-166),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간의 간격을 보면 집단 내에서 상당한 개인차는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인성점수들의 이와 같은 분포는 본 연구의 인성관련 분석 시에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집단은 비정상이라고 볼 이유가 없는 정상 집단인 만큼 결과 해석시 특정 인성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 때' 또는 '낮을 때'라는 표현의 의미는 임상적 수준이 아니라 평균보다 비교적 높거나 낮은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동일부모 집단에서 산출된 인성요인들간의 상호상관계수는 상관관계에 따라 .02에서 .84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인성요인들간의 상호상관 계수들은 비교적 높았으나 회귀분석 등의 통계처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안고 있는 수준은 아니었으며, 특히 남성성·여성성, 경조중, 내향성 등은 다른 인성요인들과 낮은 상관을 보였다. 부모의 인성요인들 중 건강 염려증은 히스테리와, 강박증은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은 편집증 및 강박증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 어머니의 히스테리는 편집증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박영애·최은경, 2001)

3. 자료 수집 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은 예비조사와 본

〈표 1〉 MMPI의 하위척도 구성 및 척도별 내용 특징

척도명	진단내용	기본차원	주요측정 내용 및 특징
척도1	건강염려증 (Hypochondriasis, Hs)	신중성	· 신체기능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관련질환이나 비정상적 상태에 대한 불안. · 정신병적 상태보다는 신체기능에 대한 신경증적 걱정으로 인한 불안과 집착 · 호소 증상 수와 타인 조종에 그 증상이 사용되는 정도
척도2	우울증 (Depression, D)	평가	· 비관과 위축, 슬픔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분(mood)척도 · 신경증·내인성이 아니라 반응성 혹은 외인성 우울증으로서 자신감 부족, 자기비하, 말이 적음 · 자신 및 자신의 생활 상황(환경)에 대해 안정되고 안락하게 느끼는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지수
척도3	히스테리 (Hysteria, Hy)	표현	· 현실적 어려움이나 갈등을 부인(denial)함으로써 회피하려는 부인방어의 양과 형태를 측정
척도4	반사회성 (Psychopathic Deviate, Pd)	주장성	· 주로 가정이나 권위적 대상 일반에 대한 불만, 자신과 사회와의 괴리, 일상생활에서의 권태 등을 측정
척도5	남성특성-여성특성 (Masculinity-Femininity, Mf)	역할 유연성	· 남성적인가 혹은 여성적인가를 측정 (양자간 구별이 모호해지고 개념 정의도 변하고 있어 문제를 지니고 있음)
척도6	편집증 (Paranoia, Pa)	호기심	· 대인관계의 민감성 또는 의심성: 상대방의 생각과 기분에 예민하거나 의도를 의심하는 것. · 남의 뜻을 잘함 · 피해의식, 상실감, 과대망상, 죄책감·참조관념
척도7	강박증 (Psychasthenia, Pt)	조직화	· 걱정을 많이 하는 성격형 불안(특성불안)으로서 오래 지속되어온 만성적 불안, 과도한 예민성, 비정상적 공포, 자기비판, 자신감 저하, 주의집중곤란, 우유부단 등을 측정. · 부적응적인 줄 알면서도 특정행동이나 사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이론적 집착과 합리화)
척도8	정신분열증 (Schizophrenia, Sc)	상상력	· 다양한 사고·감정·행동의 장애 · 외부 현실에 대한 해석의 오류, 감정 반응의 위축 및 자기불만감 많음. 양면성, 망상, 환각, 현실 회피적, 화를 잘 내고 공격적, 주의집중 및 충동억제의 곤란
척도9	경조증 (Hypomania, Ma)	열의	· 정력적, 과잉 활동적, 안절부절못함. 불안정성, 흥분성. · 사고의 다양함, 깊이 있는 흥미의 결여, 비약 및 과장성, 민감성, 기분의 고양 · 자기 가치 및 자아정체에 대한 심각한 의문
척도0	내향성 (Social introversion, Si)	자율성	·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함, 사회적 장면에서의 불편함. · 고집, 일반적 부적응 및 자기비하

조사로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는 1998년 9월 21일에서 9월 30일에 걸쳐 95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본 조사는 1998년 11월 5일에서 11월 30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서울과 대전지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240명의 아동들과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아동용 정서지능 척도와 자아존중감 척도 480부,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용 인성검사지와 양육행동 척도 각 480부씩 960부, 총 1440부가 배부되어 1328부가 회수되었는데, 이들 중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자아존중감 척도와 불충실하게 응답된 질문지들을 제외한 1036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한글 SPSS WIN(7.5 Version)과 Windows용 SAS(6.12 Version)를 이용하여 빈도, 백

〈표 2〉 부모 인성척도의 점수 분포

인성척도	아버지의 인성				어머니의 인성			
	평균	표준편차	최하점수	최고점수	평균	표준편차	최하점수	최고점수
긴장염려증	49.55	9.43	28.00	73.00	50.51	9.98	28.00	78.00
우울증	48.97	8.96	27.00	78.00	50.10	9.98	27.00	80.00
히스테리	49.35	9.88	23.00	73.00	49.50	10.06	25.00	74.00
반사회성	48.98	9.21	25.00	72.00	48.84	9.20	26.00	71.00
남성성-여성성	49.05	9.17	27.00	75.00	49.17	8.24	30.00	67.00
편집증	48.58	8.42	30.00	79.00	48.69	9.99	25.00	83.00
강박증	47.00	9.17	29.00	78.00	49.05	10.09	20.00	70.00
정신분열증	45.80	9.05	28.00	76.00	47.53	10.03	24.00	80.00
경조증	47.10	9.58	20.00	75.00	46.54	10.73	22.00	74.00
내향성	47.43	9.66	20.00	75.00	48.93	9.52	23.00	71.00

분율, 평균, 표준편차,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 분석 등으로 통계처리 되었다.

회귀분석시 분산팽창계수(VIF) 값이 10이상이 되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말하나(박성현, 1989: 551),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분산팽창계수가 대체로 1-4 사이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다중공선성에 관한한 결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정서지능 특성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아동의 학년별 정서지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서지능의 성별 차이

아동의 성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상 아동 전체를 남·여 아동의 정서지능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에 의하면 정서지능 전체 및 특히 타인관련 정서지능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왔다.

2) 정서지능의 학년별 차이

연령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고학년 집단과 저학년 집단의 정서지능 평균점수들을

비교해 본 결과는 〈표 4〉과 같다.

〈표 4〉에서 보듯이 정서지능은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지능 총점과 타인 관련 정서지능은 저학년 집단과 고학년 집단에 상당히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서지능은 대체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며, 특히 자기관련 정서지능보다는 타인관련 정서지능의 발달적 차이가 더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2. 부모의 인성특성과 양육행동

1) 아버지의 인성특성과 양육행동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아버지의 인성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학년 집단간 차이 유무를 확인하고자 저학년 집단과 고학년 집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인성특성의 설명력은 저학년보다 고학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고학년의 경우 양육행동의 온정·수용성($R^2=.24, P<.01$)과 거부·제재성($R^2=.20, P<.05$)을 유의한 수준에서 설명하였으며, 저학년에서는 거부·제재성($R^2=.26, P<.01$)만을 유의한 수준에서 설명하였다.

고학년의 경우 아버지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경조증이 정적 상관($\beta=.27, P<.05$)을, 거부·제재성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내향성이 정적 상관($\beta=.29, P<.05$)을 보였다. 이는 아버지의 경조증(정력적, 활동적, 사고의 다양성, 비약 및 과장

〈표 3〉 아동의 성에 따른 정서지능의 평균차검증

성별	정서지능	정서지능 전체		타인관련 정서지능		자기관련 정서지능	
		M	SD	M	SD	M	SD
남		106.08	16.19	2.98	.51	2.00	.25
여		111.34	12.38	3.14	.41	2.03	.25
F		1.71**		1.57*		1.04	

*P<.05 **P<.01 ***P<.001

〈표 4〉 학년집단간 정서지능의 평균차 검증

학년	정서지능	전체집단					
		정서지능 전체		타인관련 정서지능		자기관련 정서지능	
		M	SD	M	SD	M	SD
유치원-3학년		106.68	15.88	2.99	.51	1.99	.26
4학년-6학년		110.92	11.60	3.14	.30	2.03	.24
F		1.87**		2.07**		1.13	

**P<.01

〈표 5〉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인성 요인들의 회귀분석

인성	양육행동	저학년						고학년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건강염려증		-.00	-.01	-.02	-.31*	.00	.10	.00	.07	-.00	-.02	-.01	-.18
우울증		-.00	-.04	.01	.30	-.00	-.07	-.01	-.11	.00	.02	.01	.22
히스테리		.00	.06	.01	.11	-.01	-.36	.00	.04	-.00	-.10	-.00	-.04
반사회성		-.01	-.18	-.01	-.12	.00	.07	-.01	-.19	.00	.04	-.01	-.26
남성성-여성성		.00	.11	-.01	-.15	.00	.02	.01	.15	.00	.01	-.01	-.14
편집증		-.00	-.09	.01	.17	.01	.23	-.00	-.03	.01	.10	.01	.12
강박증		.00	.02	-.00	-.07	.01	.22	-.01	-.12	.01	.18	.00	.09
정신분열증		-.01	-.20	.02	.42*	-.01	-.28	-.00	-.08	-.00	-.01	.00	.09
경조증		.01	.16	.00	.04	.01	.17	.01	.27*	.00	.07	.01	.17
내향성		.00	.10	.00	.09	.00	.07	-.00	-.10	.06	.29*	.00	.04
상수		3.34		.92		1.66		3.36		.51		1.86	
R ²		.09		.26		.12		.24		.20		.14	
F		.93		3.18**		1.29		2.45**		1.97*		1.27	

*P<.1 *P<.05 **P<.01 ***P<.001

성, 민감성, 흥분성, 기분의 고양 등) 경향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키고, 내향성(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함, 부적응, 자기비하 등)은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저학년의 경우 아버지의 거부·제재성은 정신분열증($\beta = .42, P < .05$) 경향과 정적 상관울, 그리고 건강염려증($\beta = -.31, P < .05$)과는 부적 상관울을 보였다. 이는 아버지의 정신분열증(허약한 현실검증 능력, 자기 불만, 반응 위축, 양면성, 공격성 등) 경향은 거

부·제재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키고, 건강염려증(신체기능에 대한 신경정적 걱정과 그로 인한 불안과 집착)은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2)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행동

학년에 따른 어머니의 인성 특성이 양육행동을 얼마나 설명하는가를 분석해 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어머니의 경우 역시 인성의 양육행동 설명력은 고학년의 양육의 거부·제재 요인($R^2=.39, P<.001$)만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양육요인에 대한 인성요인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고학년의 경우 거부·제재 요인은 편집증($\beta=.40, P<.05$) 및 경조증($\beta=.39,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 정신분열증($\beta=-.33, P<.05$)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에게서 호기심을 기본차원으로 하는 편집증과 열의를 기본차원으로 하는 경조증이 높을수록, 양육행동의 거부·제재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반대로 상상력을 기본차원으로 하는 정신분열증 경향은 양육의 거부·제재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양육의 허용·방임성은 어머니의 건강염려증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어머니가 건강염려증 경향이 높을수록 양육행동의 허용·방임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온정·수용성은 인성요인 전체로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설명되지는 않았으나, 어머니의 반사회성($P<.05$)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저학년인 경우는 어머니의 인성이 양육요인들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정서지능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의 설명력을 보기 위해 정서지능 요인들에 대한 세 양육요인들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설명력을 보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양

<표 6>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인성 요인들의 회귀분석

양육행동 인 성	저학년						고학년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건강염려증	.01	.34	.01	.14	.00	.04	-.01	-.24	.00	.05	.02	.52*
우울증	-.01	-.22	-.00	-.07	-.01	-.16	.01	.34	.00	.00	-.01	-.16
히스테리	-.01	-.17	-.00	-.06	-.01	-.26	-.00	-.02	-.00	-.09	-.01	-.24
반사회성	.00	.06	.01	.12	.01	.17	-.02	-.44*	.00	.07	.01	.14
남성성·여성성	.00	.02	.00	.09	.00	.04	-.00	-.01	.01	.18	.01	.16
편집증	.00	.02	-.01	-.14	-.00	-.04	-.00	-.00	.02	.40*	.00	.00
강박증	.00	.17	.00	.05	-.00	-.06	.00	.16	.01	.13	.00	.03
정신분열증	-.01	-.26	.01	.17	.01	.29	-.00	-.08	-.02	-.33*	.00	.02
경조증	.00	.06	.01	.18	-.00	-.05	.01	.20	.02	.39*	.01	.17
내향성	-.00	-.09	.01	.21	.00	.09	-.01	-.29	.02	.29	.01	.18
상수	3.36		0.75		1.85		4.07		-.19		.59	
R ²	0.10		0.15		0.11		.22		.39		.23	
F	1.09		1.67		1.22		1.58		3.62***		1.73	

* $P<.05$ *** $P<.001$

〈표 7〉 아동의 정서지능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요인들의 회귀분석

정서지능 양육행동	저학년						고학년					
	정서지능 전체		타인관련 정서지능		자기관련 정서지능		정서지능 전체		타인관련 정서지능		자기관련 정서지능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온정·수용	7.38	.15	.19	.12	.16	.22*	3.21	.11	.05	.05	.05	.07
거부·제재	2.01	.05	.05	.04	.05	.09	-2.23	-.10	-.02	-.02	-.10	-.20
허용·방임	2.52	.07	.11	.09	-.10	-.04	-2.12	-.07	-.03	-.04	-.03	-.06
상수	74.06		2.07		1.45		109.81		3.08		2.17	
R ²	.03		.02		.05		.03		.01		.06	
F	.95		.76		1.77		1.04		.18		1.92	

*P<.05

육행동 요인들은 아동의 정서지능을 유의한 수준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학년의 경우 자기관련 정서지능을 6%정도, 저학년의 경우는 자기관련 정서지능을 5% 정도 설명하는데 머물렀다.

양육행동 요인별로 살펴보면 저학년 아버지의 일부 양육행동 요인은 아동의 자기관련 정서지능만을 어느 정도 설명하였다. 즉 저학년 아버지의 온정·수용성이 자기관련 정서지능과 정적 상관($\beta = .22, P < .05$)을 보였다. 이는 아버지의 온정, 수용, 관심과 존중은 특히 저학년 아동이 자신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

아동의 정서지능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 요인들의 설명력을 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전반적으로 아동의 정서지능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고학년, 저학년 모두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 요인별로 보면 어머니의 허용·방임성이 고학년 아동의 자기관련 정서지능과 유의한 부적 상관($\beta = -.27, P < .05$)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익애적 허용성이나 무관심과 방임은 아동의 자기정서 인식과 조절 및 정서활용 능력의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

〈표 8〉 아동의 정서지능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요인들의 회귀분석

정서지능 양육행동	저학년						고학년					
	정서지능 전체		타인관련 정서지능		자기관련 정서지능		정서지능 전체		타인관련 정서지능		자기관련 정서지능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온정·수용	6.02	.10	.08	.04	.05	.05	.31	.01	-.04	-.03	.05	-.05
거부·제재	.72	.02	.06	.05	.01	.01	.23	.01	-.02	-.02	-.10	-.03
허용·방임	-4.39	-.12	-.14	-.11	-.07	-.12	-5.46	-.18	-.08	-.08	-.04	-.27*
상수	93.85		2.88		1.97		120.42		3.45		2.53	
R ²	.02		.01		.02		.03		.01		.08	
F	.78		.48		.62		.99		.26		2.54	

*P<.05

사한다.

〈표 7〉와 〈표 8〉에서 주목할만한 사항은,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경우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나온 것이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저학년보다 고학년의 경우에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 한가지는, 온정·수용성의 긍정적 효과는 어머니의 경우보다 아버지의 경우에서 전반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 것인데, 이는 고학년보다 저학년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4. 부모의 인성 특성과 아동의 정서지능

연구문제 4와 관련하여 아동의 정서지능과 부모의 다양한 인성 특성들과의 기본적인 관계 양상을 살펴 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 및 〈표 10〉에 소개된 바와 같다.

1) 아버지의 인성과 아동의 정서지능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인성은 아동의 정서지능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유의수준에 미치지지는 못했지만 고학년 아동의 타인 관련 정서지능을 9%, 자기관련 정서지능을 11%, 저학년 아동의 타인관련 정서지능을 7%, 그리고 자기 관련 정서지능은 11%를 설명하였다(표 9).

인성 요인별로 살펴보면 고학년에서는 아버지의 정신분열증 경향이 정서지능 총점($\beta = -.43, P < .05$)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아버지의 정신분열증 경향(현실해석 부정확, 자기불만감, 감정반응 위축, 양면성, 공격성 등)이 아동의 정서지능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저학년의 경우는 아버지의 내향성이 정서지능 총점($\beta = .32, P < .05$)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정서지능에 대한 아버지 인성의 영향이 저학년의 경우는 자기관련 정서지능에 대한 내향성의 긍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그리고 고학년에서는 타인관련 정서지능에 대한 정신분열증 경향의 부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표 9〉 정서지능에 대한 아버지 인성요인들의 회귀분석

정서지능 인성요인	저학년						고학년					
	정서지능 전체		타인관련 정서지능		자기관련 정서지능		정서지능 전체		타인관련 정서지능		자기관련 정서지능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건강염려증	-.25	-.13	-.01	-.18	.00	.09	.33	.27	-.00	-.11	.01	.20
우울증	-.43	-.24	-.01	-.16	-.00	-.10	-.25	-.17	-.00	-.01	-.01	-.28
히스테리	.37	.21	.01	.16	-.00	-.10	-.02	-.02	.01	.15	.00	.04
반사회성	-.22	-.11	-.00	-.07	-.00	-.12	.08	.06	.00	.02	.00	.07
남성성-여성성	-.24	-.13	-.01	-.09	-.00	-.12	.13	.09	.00	.01	.00	.12
편집증	.21	.10	.00	.01	.01	.26	-.13	-.09	-.00	-.02	-.00	-.04
강박증	.19	.11	.01	.11	-.00	-.11	.09	.06	.01	.13	.00	.11
정신분열증	-.32	-.17	-.00	-.07	-.00	-.11	-.56	-.43*	-.02	-.38	-.01	-.22
경조증	.23	.12	.01	.19	.00	.03	-.07	-.05	.00	.01	-.00	-.12
내향성	.54	.32*	.01	.21	.01	.29	.05	.04	.00	.04	-.00	-.05
상수	102.77		2.73		2.03		125.78		3.45		2.27	
R ²	.09		.07		0.11		.19		.09		.11	
F	.90		.73		1.10		1.84		.77		.96	

*P<.05

2) 어머니의 인성과 아동의 정서지능
 학년집단에 따라 어머니의 인성특성이 아동의 정서지능을 설명하는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10>와 같다.

은 아동의 자기정서문제 해결능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우울증이 정서지능 총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10> 정서지능에 대한 어머니 인성요인들의 회귀분석

정서지능 인성요인	저학년						고학년					
	정서지능 전체		타인관련 정서지능		자기관련 정서지능		정서지능 전체		타인관련 정서지능		자기관련 정서지능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건강염려증	.03	.02	-.00	-.03	.00	.04	-.01	-.01	-.00	-.03	.00	.10
우울증	-.53	-.32	-.02	-.30	-.00	-.19	-.57	-.46*	-.01	-.28	-.01	-.35
히스테리	.14	.09	.01	.17	-.00	-.06	-.16	-.14	.00	.12	-.01	-.44
반사회성	.28	.16	.01	.17	.00	.12	.36	.26	.00	.06	.00	.16
남성성-여성성	.12	.06	-.00	-.05	.00	.17	.00	.00	.01	.17	-.00	-.09
편집증	.02	.01	-.00	-.06	.00	.16	-.05	-.04	-.00	-.02	.00	.19
강박증	.46	.27	.01	.22	.00	.16	.44	.39	.01	.15	.01	.40
정신분열증	-.52	-.31	-.01	-.24	-.01	-.21	-.37	-.31	-.00	-.02	-.01	-.42*
경조증	.13	.08	.01	.23	-.00	-.06	-.18	-.16	-.01	-.17	-.00	-.02
내향성	.49	.29*	.02	.33*	.01	.22	.19	.14	.01	.22	-.00	-.02
상수	74.56		1.85		1.50		126.18		2.60		2.71	
R ²	.09		.12		.08		.16		.10		.23	
F	.98		1.41		.85		1.11		.63		1.72	

*P<.05

어머니의 인성은 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정서지능을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해주지는 못하였다. 고학년의 경우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나 어머니의 인성은 아동의 자기관련 정서지능에 대해 23%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며(P<.1), 정서지능 총점을 16%, 타인관련 정서지능을 10%정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년 역시 전반적인 유의도는 낮았으나, 타인관련 정서지능을 12%, 정서지능 총점을 9%, 자기관련정서지능 8%정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인성요인별로 살펴보면 고학년에 있어서 아동의 자기관련 정서지능은 어머니의 성격요인 중 정신분열증($\beta = -.42, P<.05$)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정서지능 총점은 어머니의 우울증과 부적 상관($\beta = -.46, P<.05$)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정신분열증 경향, 우울증(비관, 슬픔, 위축, 자신감 부족, 자기비하 등)등

저학년은 어머니의 내향성과 정서지능 총점($\beta = .29, P<.05$) 및 타인관련 정서지능($\beta = .33, P<.05$)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내향성은 특히 타인관련 정서지능에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머니의 다양한 인성요인들 중 특히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이 정서지능발달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내향성은 저학년의 정서지능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학년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인성요인들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인성이 고학년의 경우는 자기관련 정서지능을, 저학년의 경우는 타인관련 정서지능을 더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하다.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 및 인성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에 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정서지능 특성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서지능의 발달적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가 저학년 집단과 고학년 집단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P < .01$)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는 자기관련 정서지능(자기정서 인식, 조절, 활용)에서 보다 타인관련 정서지능(타인정서 인식, 조절, 정서표현, 감정이입)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남이 발견되었다. 이는 정서지능의 발달적 차이를 다룬 연구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자기관련 정서지능보다 타인관련 정서지능에서 명확히 포착된 것은 과거 우리 나라의 정서 교육이 억압과 자제를 요구하기는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정서를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조절하며 창의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적 제시가 없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서 자기관련 정서에 관한 한, 적어도 아동기 동안에는, 발달적 변화가 그리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가능한 또 한가지 설명은,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기 및 아동기 정서교육이 자기 내면에 대한 관심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정서표현과 타인의 정서 인식 및 감정이입 등 외부 또는 타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관계로 타인관련 정서지능은 발달적 변화에 교육의 효과가 더해져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가지 가능한 추론은 타인관련 정서지능 중 특히 정서표현 및 타인의 정서인식과 조절(감정이입)은 보다 지시적이고 직접적인 교육과 훈련 또는 의식적인 노력과 모방을 통해 보다 쉽게 변화될 수 있는 내용인데 비해 자기 정서의 조절과 활용방식은

타고난 성격과 선호 등 개인 내적 특성과 보다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환경적 맥락 특성(예: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에 의해 보다 소극적, 간접적, 묵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서 발달적 변화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과 설명들은 비교문화적 연구를 포함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우리 문화가 과거에 비해 타인지향적인 경향이 강해지는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도 아동의 타인지향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배경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성별로 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지능 총점이 높았고 특히 타인관련 정서지능이 높게 나왔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부모의 인성특성과 양육행동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인성의 설명력이 부모 모두의 경우 저학년보다 고학년에서 더 높게 나온 데는 몇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그 첫째는, 성장과 더불어 아동의 이해력과 행동능력이 증가하고 행동특성이 보다 뚜렷해지면서 부모의 역할과 반응양식도 단순하고 확일적인 보호와 보살핌을 넘어서 상호작용이 보다 개별화되어가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부모의 내적 특성인 인성이 양육행동에 보다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둘째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인성 자체가 양육이라는 맥락 속에서 계속적으로 형성 또는 변화되어 갈 수 있어 양육행동과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학년에 관계없이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경우 인성이 양육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위의 두 설명 중 후자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보다 많은 양육행동을 수행해야 하는 가운데서 이 두 변인이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주고받은 결과일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인성요인이 학년에 따라, 부·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은 부모의 인성과 양육행동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시사해주는 바가 있

다. 특히 어머니의 경우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에서 양육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인성 요인들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은 학년에 높아감에 따라,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이 그만큼 더 힘들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자기인성의 취약한 면들이 표면화되고 따라서 건강하지 못한 인성특성들과 양육행동의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강화되어가면서 나타난 현상일 것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 나라만의 것인지는 비교문화적 연구를 통해 검증해 보아야 할 일이다.

건강염려증은 저학년의 경우 아버지의 거부·제재성을 감소시켰으며 고학년의 경우 어머니의 허용·방임성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환경적 변화에 대해 민감하고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부모일수록 저학년 자녀에게는 덜 거부·제재적이 되고 고학년 자녀에게는 더 허용·방임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특히 어머니가 건강염려증 경향을 지닌 경우 아동이 성장해 감에 따라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 요구적·통제적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충동과 갈등을 회피하는 쪽으로 행동함으로써 허용·방임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자율성을 기본차원으로 하고 고립성과 자기 비하성을 내포하는 내향성은 고학년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거부·제재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년에서만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며, 자율성 추구하는 성향을 지닌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보다 커가면서 양육행동면에서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온정적·수용적 행동을 덜 보이게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경우 내향성이라는 아버지의 인성특성은 외현적 양육행동에서 거부·제재성을 높이고 온정·수용성을 떨어뜨리는 심리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의 맥락에서 부모의 내향성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임을 확인시켜준다.

고학년의 경우 어머니의 경조증은 양육의 거부·제재성을 높이고 아버지의 경조증은 온정·수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온 결과는 서로 대조되어 주목을

끈다. 열정과 에너지를 기본 차원으로 하는 경조증이 아버지의 경우에는 우선 대부분 그러한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는 일터가 있어 기본적으로 덜 억압되어 있는 데다, 가끔 접하게 되는 양육상황에서는 그 회소가치로 인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지닌 에너지와 과장성, 민감성, 고양된 기분 등이 바로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 또는 참여의지와 실천의 즐거움 등으로 동일시 될 수가 있어 긍정적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어머니의 경우는 그러한 성향을 마음껏 발휘하거나 충족시킬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경험하는 과도한 갈등과 자기억제로 인해 좌절과 불만이 누적되어 있어 경조증과 같은 성격 특성은 온정·수용성보다는 거부·제재적 행동을 증가시키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반사회성은 주장성을 기본차원으로 하고 가정이나 권위대상에 대한 불만을 특징으로 하는데, 자녀가 고학년이 되면서 어머니의 온정·수용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양육행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이 발견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반사회성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정서와 사회와의 괴리감을 전달하고 비난과 지시를 증가시켜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상력을 기본차원으로 하고 허약한 현실검증 능력, 자기 불만, 반응 위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분열증은 저학년 집단 중 특히 아버지의 거부·제재성을 증가시켰고, 고학년 집단 중 특히 어머니의 거부·제재성을 감소시켰다.

편집증은 고학년 집단에서 어머니의 거부·제재성을 증가시켰다. 고학년 집단에서 어머니의 편집증이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킨 것은 대인관계에 대한 민감성과 피해의식·상실감·죄책감과 같은 심리상태가 양육행동시 거부적 경향을 증가시키는 배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록 해석이 용이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결과들은 동일한 성격특성이 부·모에 따라, 그리고 아동의 발달수준에 따라 양육행동에 상이한 효과를 가져옴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3)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

정서지능에 대한 양육행동 설명력은 예상보다 낮아서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설명력을 보면 부모의 양육행동은 타인관련 정서지능보다 아동의 자기관련 정서지능을 더 잘 예측함이 발견되었다. 비록 통계적 유의도와 설명력이 낮기는 하였지만 아버지의 거부·제재성과 어머니의 허용·방임성이 아동의 정서지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것은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 아동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선행연구 결과들(박영애 등, 2000a; 오영미, 1997; 이광자, 1997)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 중에서도 허용·방임성의 부정적 효과는 그러한 행동이 아버지에게서보다 어머니에게서 보여질 때 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허용·방임성이 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발견은 허용·방임성이 대체로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서 보다 쉽게 관찰되고 어머니들이 현실적으로 보이기 어려울 수 있는 양육 특성임을 감안할 때 그러한 행동이 어머니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아동에게 적지 않은 혼란과 실망을 줌으로써 그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연구 결과의 이러한 부분은 어머니가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아동이 지각할수록 아동의 정서지능이 높게 나온 연구(박영애 외2인, 2000a)라든가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민주·자율적, 온정적으로 지각할 때 정서인식을 높게 갖고 있고 다른 정서 요인들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는 연구(오영미, 1997)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양육행동과 정서지능과의 관계가 온정·수용성을 중심으로 한 긍정적인 연관성보다는 허용·방임의 부정적인 효과 측면이 부각되어 나타난 것은 그 구체적 관계양상과 이유를 규명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서지능에 대한 양육행동의 설명력이 전반적으로 이처럼 예상보다 낮게 나온 이유로는, 양육행동 척도가 정서지능 관련성보다는 양육의 기본적인 차원

또는 요인에 관련된 문항들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서지능 척도도 신뢰도/타당도 검증이나 표준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서 만족할만한 안정성과 요인구조를 지니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과,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범위를 너무 넓게 잡은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서지능은 아동으로부터, 양육행동은 부모로부터 응답을 얻어 자료간 상관이 더 낮게 나왔을 가능성도 크다.

4) 부모의 인성특성과 아동의 정서지능

양육행동 자료와 합쳐서 보면 부모의 양육행동과 인성에 의해 더 잘 예측되는 정서지능은 아동의 자기관련 정서지능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을 앞서 소개된 성별 차이와 학년집단별 차이가 타인관련 정서지능을 중심으로 포착되었던 사실과 비교해보면 타인관련 정서지능은 성, 연령과 같은 생득적 변인 또는 지위변인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자기관련 정서지능은 인성이나 양육행동과 같은 보다 개인 내적이고 과정적인 변인과 더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물론 이 두 정서지능 요인들도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나, 그 중에서도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실로 감정이입을 하는 능력은 어쩌면 훈련과 모방만으로는 획득이 어렵고 어느 정도의 성숙이나 개인의 내적 역량을 요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의 정서지능에 대한 부모 인성요인의 설명력 역시 저학년보다 고학년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신분열증은 고학년 집단에서 부정적으로, 내향성은 주로 저학년 집단에서 긍정적으로, 우울증은 주로 고학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 부정적으로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부모의 이러한 성격요인들은 다른 성격요인들에 비해 아동의 정서지능을 예측하는 힘이 있으며, 내향성은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어린 아동에게 있어 특히 더 영향력이 있음을 말해주며, 정신분열증은 아버지나 어머니와 나이든 아동에게, 우울증은 아버지나 나이든 아동에게 보다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함

을 알 수 있다. 그 이유와 내적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우울증에 관한 위와 같은 부정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아동에 대한 평가를 부정왜곡 시키고 아동의 생활능력을 낮게 평가한다는 선행연구들(김윤심, 1995; 김지영, 1989; 문경주, 1994)과 맥을 같이 한다. 현실회피적 상상력을 기본차원으로 하는 정신분열증은 가정 분위기에 불안정한 기조를 형성하거나 위축과 공격성 등과 같은 양면성으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여 아동이 자기 감정의 올바른 이해와 표현을 배우거나 모델을 통해 건설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활용하는 것을 배울 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정서지능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율성을 기본 차원으로 하고 독립성과 자기 실현을 내포하는 부모의 내향성이 특히 저학년 아동에게만 정서지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온 결과는 부모의 내향성에 내재된 긍정적인 특성들이 비교적 어린 아동일수록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에 대한 이상의 해석과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아동의 정서지능은 성과 연령(학년 집단)에 따른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연령 집단간 차이는 정서지능의 발달적 변화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서지능의 발달적 차이는 자기관련 정서지능보다 타인관련 정서지능에서 보다 뚜렷이 나타난다.

둘째, 부모 인성의 양육행동 예측력은 저학년보다 고학년에서 더 높게 나오며, 연령 집단에 관계없이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인성이 양육행동을 더 잘 설명해주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양육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개별 인성요인들은 학년 집단에 따라, 그리고 부·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셋째, 부모의 양육행동은 타인관련 정서지능보다 아동의 자기관련 정서지능을 더 잘 예측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서지능에 대한 양육행동의 설명력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기는 했으나, 이는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모델과 연구에 사용된 척도에서 그 원인의 일부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후속연구를 통한 재검토가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정서지능에 대한 부모의 인성요인의 설명력 역시 저학년보다 고학년에서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부모의 인성 역시 아동의 자기관련 정서지능을 타인관련 정서지능보다 더 잘 예측해주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의 논의와 결론에 이어서 보다 발전된 후속연구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정서지능 척도를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정서의 핵심요인과 기본 요인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한 차원 높임으로써 세 연구 변인간의 관계를 보다 충실하게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양육행동 척도의 문항들을 양육의 기본 차원들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정서지능의 개념과 보다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내용으로 선별, 대체, 재구성 또는 새로이 제작하여 두 변인간 관계의 참모습에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육의 어떤 측면이 특히 아동의 정서지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러한 측면의 양육행동의 어떤 특징이 아동의 정서지능과 어떤 식으로 연관을 보이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셋째, 정서지능을 자기보고식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정서지능의 내용이 개인의 인지능력과 진실성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넷째, 학년집단을 둘로 구분하여 연령효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발달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의 한 단면을 볼 수는 있었으나, 대상 아동의 연령 범위가 비교적 넓은을 고려하여 보다 신뢰롭고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현재보다는 규모가 큰 표집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작고 불안정한 정서지능의 연령차와 성차를 출발점으로 하여 정서지능

및 관련변인들과의 관계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성별, 연령별 차이의 양상을 규명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과 해석과 논의 및 결론 부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양육행동이거나 긍정적 인성특성이라고 해서 아동의 정서지능발달에 반드시 순기능적으로 작용하고 그렇지 않아 보이는 특성이라고 해서 항상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유념하고서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심층적, 입체적으로 변인간 관계규명을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제약과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근 학계와 일반으로부터 급증하는 관심을 받고 있는 아동의 정서지능의 구조를 이해하고 측정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는 점과, 아동의 정서와 정서관련 역량의 발달에 최초 이면서 가장 깊고 포괄적으로 영향을 주는 존재인 부모가 보여주는 양육행동의 기여양상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는 점, 그리고 아동의 정서지능과 부모의 행동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함에 있어 부모의 양육행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리적·맥락적 요인의 영향과 기여양상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비교적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가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하나의 작은 자극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 접수일 : 2001년 7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1년 9월 3일

【참 고 문 헌】

권일선(1994).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윤정(1997). 정서지능의 발달경향성과 구인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병입(1992). 양육태도·자아개념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간의 분석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숙·조정아 역(1992). 문제의 부모. 도서출판 서원.
 김윤심(1995). 어머니의 우울성향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술(1996). 다면적 인성검사 : MMPI의 임상적 해석.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지영(1989). 어머니의 우울성향과 그 자녀의 정서적 특성 및 사회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향희(199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 및 정서간의 상관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현미·박인전·박영애(1999).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문경주(1994).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부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용린(1997). 종합진로-적성검사. 서울: 대교출판부.
 문용린·곽윤정·이강주(1999). 정서지능 연구의 성과와 전망. 서울대 교육연구소.
 박성현(1989). 회귀분석. 민영사 p551.
 박세정·박인전·최영희(2000). 어머니 우울성향과 부모 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 및 아동의 생활능력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5(1).
 박영미(1995).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부적응 행동간의 상관.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영애·최영희·박인전(2000a).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과 관계. 한국가족복지학회 5(2), 161-182.
 박영애·최영희·박인전(2000b).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과 관계. 아동학회지 21(3), 5-19.
 박영애·최은경(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인성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초등학교고학년을 중심으로-. 대학논문집(사회과학편), 한남대학교

- 교 출판부. 제31집.
- 신동수(1996).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내외통제성과 스트레스간의 관련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영미(1997).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자(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감성지능과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수(1985).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현진(1997).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연주(1996).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내·외적 통제성간의 관계.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희(1992).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불안정도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원대 논문집 10, 175-187.
- 한국가이던스(1998). 다면적 인성검사(MMPI).
- Belsky, J., & Vondra, J.(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 Luster. T. & Okgaki, L.(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Lawrence Erlbaum, 227~250.
- Bettes, B. A. (1988), Maternal Depression and Motherese: Temporal and intonational Features. *Child Development* 59. 1089~1096.
- Bronstein, P., Fitzgerald, M., Pieniadz, J., D' Ari, A., (1993),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as a Predictor of Early Adolesc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3(4), 448-471.
-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 Grossman. F. K., Pollack. W. S., & Golding. E. (1988), Fathers and children: "Predict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fathe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82-91.
- Huntsinger, C. S., Jose, P. E., & Larson, S. L.(1998). Do parent practices to encourage academic competence influence the social adjustment of young European American and Chinese American Children? *Development Psychology* 34(4), 747-756.
- Kunze, J., & Anderson, W. (1976). Normalizing the MMPI. *Quarterl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33, 807-809.
- Kunze, J., & Anderson, W. (1984). Perspectives on uses of the MMPI in nonpsychiatric settings. In P. McReynolds & G. J. Chelune (Eds.), *Advances in Psychological Assessment*. San Francisco : Jossey-Boss.
- Mayer, J D., & Salovy, P.(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Mayer, J D., & Salovy, P.(1995).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construction and regulation of feeling.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4, 197-208.
- Mayer, J D., & Salovy, P.(1996). EQ : 감성지능학습법, 홍명희(역). 서울: 해냄출판사
- Mayer, J D., & Salovy, P.(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eter Salovey and David J. Sluyter(Eds). *Emotional Implication*. New York : Basic Books.
- Parke, R. D. (1994). Progress, Paradigms, and unresolved problems: Recent advances in our understanding of children's emo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57-169.
- Salovy, P., Sluyter, D. J.(1997).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 Educational Implications*. New York : Basic Books. Harp Collins Pub.